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

군 수

2017 송 년 사



완도군
WANDO COUNTY

송 년 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군민과 함께 힘차게 달려온 정유년이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군정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전국 각지에 계신 향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올해는 우리 완도군이 제 2의 장보고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먼저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로 우리군 수산물이 해외로 진출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수산소득 1조원 시대를 열어가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산업형 비즈니스 박람회답게 2,332억 원에 달하는 경제 파급효과와 2,156명의 고용창출, 그리고 13개국 5,230만 달러의 수출계약과 37개국 2,9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하나 된 모습으로 박람회를 지원해주셨고, 전국 30만 향우들이 고향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로 높아진 완도 특산물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 상당한 수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마켓에 완도 수산물코너를 입점시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습니다.

또 하나 괄목할 만한 성과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자 미래 신성장산업인 해양헬스케어 산업의 선도 지자체로 우리 완도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낸 일입니다.

미래 완도 100년을 내다보며 완도만의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의료·관광·바이오산업과 융·복합한 전략산업으로 준비해 왔기에, 미래 먹거리산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번 선정은 가장 의미 있는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근해 조업선단을 완도항에 입항 유치해 5,1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며, 선단 입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도시 개봉관 영화를 지역에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조성한 작은영화관은 지난 9월 첫 개관 이후 2개월 만에 1만 명이 관람하면서,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 해소와 관광 시너지 효과로도 이어져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평생 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향후 국가지원 속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이 가능해 졌습니다.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은 금년에 청결·안전분야 으뜸 해수욕장과 전국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되어, 2019년 국내 첫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전망을 밝게 해주는 명품 해수욕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청산도 슬로건기 축제와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은 우리나라 봄·가을 대표축제로 떠올랐고, 올해 새롭게 개편해 선보인 토요 싱싱콘서트는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축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브랜드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고 싶은 섬 사업에 도내 최다인 3개소가 선정됐고, 랜드마크 완도타워는 최고의 야간전망을 즐길 수 있는 전국 3대 전망타워로 뽑히면서 5백만 관광객시대 실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올해로 2회째 열린 장보고한상 어워드는 재외 한상(韓商)들에게 주어지는 최고 명예로운 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전복양식 산업 육성을 위해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수출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해조류 양식어업의 생산 확대에 주력해 온 결과 황금바다 프로젝트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항생제 시대를 열어 가고 있는 완도 명품 광어는 백신 공급 이후 타 지역과의 차별성과 생산량 증가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효자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은 친환경 메카로 경쟁력을 갖추며 확고한 정착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가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는데 이어,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 브랜드 또한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에 선정되며 소비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맞춤형 서민정책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면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사업은 우선 1단계로 광주~강진 구간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노화~구도간 소안1교 준공에 이어 완도읍을 중심으로 4개 교량과 연결된 신지~고금간 장보고대교가 정식 개통함에 따라 동부권 주민의 해상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군민 하나되기 운동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일제 강점기 잃어 버렸던 상왕상과 상왕봉은 지역단체와 군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옛 이름을 찾았습니다.

보길권역과 완도 망석지구는 올해 각각 거점 개발사업과 마을단위 특화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3년간 120억 원을 지원받게 됐고, 3년 연속 선정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화권역 거점 보건지소 설치로 취약한 섬 지역의 응급 의료시스템이 개선됐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관리 및 감시체계 운영을 충실히 수행해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민선6기 들어 중앙부처 등의 외부 평가에서 93개 분야 수상과 7억여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서 85건, 1,710억여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군민과 향우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라 여기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되돌아보면 아쉽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근간산업인 전복산업이 국내경기 침체와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한 급격한 수출 감소, 그리고 기후변화에 의한 전복의 대량 폐사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AI와 쌀값 하락으로 농어촌의 시름이 깊어지고, 군민들의 체감경기도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지난봄부터 시작된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수개월째 제한급수로 식수난과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과 귀농·귀어 인구 유입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인구 감소세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 해법을 찾아 시행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이 보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게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된 것은 보강하겠습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무술년 새해에도 활력과 웃음이 넘치는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갑시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7. 12. 29.

완도군수 신 우 철